가출 청소년 Total Service

기다리지 않고 '이동청소년쉼터'가 직접 찾아 갑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과
사진제공 : 구로청소년 쉼터

전용버스 타고 가출 청소년들을 찾아 출발!

가정의 무관심과 불화, 학교폭력 · 부적응 등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의 가출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마음먹고(?) 도피처를 찾아 나오지만 반갑게 그들을 맞이해 주는 곳은 별로 없다. 또래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며, 급기야는 탈선과 성매매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

서울시가 이러한 가출 청소년들의 보호지원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가출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출의 장기화, 탈선예방 및 조기 가정(학교)으로의 복귀를 도와주며 상담 및 정서순화 프로그램 운영 실시로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자 하여 '이동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쉼터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동청소년쉼터는 아직 생소하다.

이번에 운영되는 이동청소년 쉼터는 전용차량을 이용해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쉼터(승합중형 25인승)로 가출청소년밀집지역에 직접 배치되어 현장 상담, 정보제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전용차량 안에는 상담실, 휴게실, 세면시설, 싱크대, 냉장고 등이 비치되어 간단한 식사와 잠까지 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요일별 지역 이동 청소년 쉼터도 운영 중

지난 3월 30일, 보라매공원 마당에서는 쉼터 관계자 및 청소년들이 참석하여 오픈식을 개최하였다. 차량제막식 및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기존의 청소년 쉼터와 연계지원하여 복지서비스 구축에 첫걸음을 내딛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가출 연구활동 등 활발한 사업을 통해 가출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토록 도움을 주게 된다.

이동청소년 쉼터는 요일별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된다. 가출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수요일은 보라매 공원, 목요일은 신천역, 금요일은 노원구 중계근린공원, 토요일은 명동, 일요일은 신림역으로 이동하는데,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4시 ~ 밤 12시까지, 일요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문상담가가 상주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이동청소년 쉼터와 연계되는 청소년 쉼터로는 구로청소년쉼터와 신림청소년쉼터 2곳으로 가출 청소년들이 3개월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이고, 더 오랜 기간 머무는 경우는 신림동에 위치한 중기보호쉼터(1년 내외)를 이용하여 숙식제공은 물론 전문관리자들에 의해 가정 및 학교 복귀와 자립을 돕고 있다. SW